

# 美금융자본의 對中 접근금지 의미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감사·사이버 능력에 중요한 민감 기술 및 그 발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 시간) 첨단반도체, 양자정보 기술, 인공지능(AI) 3가지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술과 관련 활동에 관여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언급한 발언이다. 그는 국가 안보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특정하며 미국의 투자가 이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단정했다.

미국의 금융자본이나 투자회사들은 자국내 제조업의 쇠락과 對중국 무역적자에 따른 국부 유출에 대응해 전세계를 상대로 자본이득을 벌여주며 미국을 지탱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

다. 수익이 있다면 주권국가의 존립도 흔들어대는 초국적 자본들의 거센 반발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국익까지 거론하며 초강수를 둔 것은 가벼이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과 관련, 서방 진영에서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3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국익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고 국가주도 경제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시장경제국가로서의 회원자격에 많은 이의가 제기됐다.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100여개 회원국은 물론 자국 의회까지 설득했다. 결국 중국은 이듬해 국제 자유무역의 틀 속으로 들어왔다.

시간이 흘러 2018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게 공평한가”라고 공격했다.

트럼프는 그 해에 “무역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도난당하고 있다”면서 대중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첨단기술·군사 용 반도체 수출금지부터 고사양반도체 생

산장비 판매금지, 반도체 보조금 수령기업의 중국사업 제한, 첨단기술기업 중국투자 사전심사제 등 첨단기술 관련 對중국 규제는 줄을 이었다.

화통정점이 이번 자국 자본의 중국 첨단기업 접근금지 명령일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이래 밀월을 즐기던 두나라 관계는 17년만에 금이 갔고 이제는 적성국이 돼버렸다.

국제 질서는 최근 5년여 사이 분명히 바뀌었다. 소련해체 이후 유일 강대국이 된 미국과 동방의 패자 복귀를 노리는 중국 사이에는 전운이 감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의 안보와 군사 문제가 전면에서 거론돼 자칫 무력분쟁의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 미국의 對일본 전략물자 봉쇄를 얼핏 떠오르게 한다.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언제나 한계를 보였던 것이 극단적 패권전쟁의 결말 예측이다. 단, 분명한 것은 패권의 향방에 따라 그 주변자들도 부침했다는 점이다.

살얼음판 위에 선 대한민국의 형편을 모두가 좀더 냉철하게 살펴볼 때라고 하면 기우일까.

/sk8472@

## 근감소증 치유를 위한 밀솔루션 (下)



연 윤 열 의  
자유보감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함은 물론 인체 조직을 생성하거나 성장시키고 회복하는 기능을 한다.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다른 배열로 재결합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인류는 진화과정에서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9가지를 생성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 9가지 아미노산을 필수아미노산이라 부르고 인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두부, 콩, 견과류(캐슈너트, 피스타치오, 아몬드 등), 퀴노아, 씨

앗 등을 꾸준히 섭취하기 바란다. 특히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맥경화 등 혈관질환에는 좋은 지방이지만 햇빛에 노출되거나 가열, 장마철 습기에 취약하여 분해되기 쉽다.

견과류와 씨앗은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마이아르 반응에 의해 고소한 맛과 냄새를 나타낸다. 볶을 때 황금색이 되자마자 불을 끄고 남은 잔열을 이용해서 케리오버 쿠킹을 하면 견과류 세포 내에 들어있는 미세한 지방분자(올레오솜)가 확산되면서 내용물이 견과류 전체로 침투되어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근육형성을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손상된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이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DNA부터 각종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분자구조 생성에 관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새로운 단백질로 조립되고 이런 단백질의 일부는 근육같은 인체를 구성한다. 한편 나머지 단백질은 효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근감소증이 의심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물건을 잘 들지 못함 ▲계단 오르기 어려움 ▲ 체중감소 ▲악력 약화 등이다.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 정도가 적절하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한다면 오히려 근육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더불어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류신(Leucine) 등 근육생성에 효과적인 측쇄상 필수아미노산이 유효하고 육류, 생선, 유제품뿐 아니라 비타민D, 검정콩, 대두 등은 근감소증을 물리치는 ‘밀솔루션’이 될 수 있다.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오늘의 운세 9월 1일 (음 7월 1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불행은 남들에게 내보일 필요가 없다. 48년생 삼재팔난이니 구설에 유의. 60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2년생 나의 숨은 실력을 보여 줄 기회가 온다. 84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소** 37년생 먼저 용서하고 칭찬하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다. 49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 주라. 61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3년생 오늘은 양보와 봉사가 미덕. 85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상쾌한 하루.

**호랑이** 38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다. 50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2년생 가족들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74년생 특히 친구와의 대화에 주의. 86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토끼** 39년생 한 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51년생 자식이 짝을 데러오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 63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75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않 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87년생 자존감을 나를 지켜 주는 힘.

**말** 40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시간 낭비. 52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64년생 고집을 부리면 부모도 외면하는 법. 76년생 시간을 갖고 기다라라. 88년생 화창한 봄날처럼 마음이 여유롭다.

**뱀** 41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3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65년생 직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77년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 89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삶의 아픔도 알아야 한다.

**말** 42년생 돈 자랑 말로하지 마라. 5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6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라. 78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90년생 주변사람에게 한 격려는 큰 성과로 돌아온다.

**양** 43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55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7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 79년생 노력해야 큰 곳으로 나갈 수 있는 법. 91년생 하찮은 걱정은 과감히 버려라.

**원숭이** 44년생 나이 든다는 것은 성숙 되는 것. 56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짐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8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치림에도 신경 써야 한다. 80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92년생 돈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닭** 45년생 일 처리가 끝나도 성과는 늦게 나타난다. 57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써라. 69년생 말 많은 사람을 조심. 8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니 쪽빛보다 더 푸른 법. 93년생 그림의 떡이 아니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개** 46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많다. 58년생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70년생 남의 허물을 지적하면 내 허물도 드러난다. 82년생 행동에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94년생 이혼을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보라.

**돼지** 47년생 멀리서 온 소식에 마음이 아픈 하루. 59년생 깔끔한 포기가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71년생 순풍에 돛단배 가듯이 순조로운 날. 83년생 너무 사랑하면 결혼은 힘들다. 95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박이 아니니 선무는 판단은 절자.

## 김상희의 四季

무기와 평화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여의도를 지날 일이 있었다. 현수막이 보이는데 글귀는 “평화는 군사력에서!”라는 구호였다. 우선 든 생각은 평화를 원한다면 대화와 화합으로 풀어야지 무력으로 하면 대립만 첨예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필자는 금방 생각을 바꾸었다. 힘이 없는 자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음. 세계 역사의 발자취를 보자면 평화는 무력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살펴보면 지구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발전은 보다 근대화된 무기를 만들어 낸 종족들에게 번영을 안겨다 주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 청동문화에서 철기문화로 이전되면서 청으로 만든 창과 같은 철로 만든 칼과 창을 당할 수 없었다. 대표적인 예가 청동기를 사용하던 인도의 원주민 종족들은 철기 무기를 지닌 아리아족에 의해 역사의 패권을 넘겨주고는 수드라나 바이사라고 하는 평민과 노예 그룹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종내에는 자랑스러운 인류문명의 발상지라 알려진 인더스, 갠지스문명의 주인공이었던 인도 원주민들인 드라비다족들은 침입자인 아리아인들의 철제무기에 패하여 지금까지 카스트제도의 아래 계층으로 지내오고 있다.

시대는 흘러 총과 포탄이 발명되면서 철기 무기는 맥을 못 추게 되니 일본과 서양의 신식무기에 우리 조선의 군대는 신미추양요 경술(庚戌)국치를 당하게 된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은 예다. 인류의 역사는 무기에 의해 뜨고 무기에 의해 진 것이다. 그렇다.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나라는 평화를 말 할 주변이 되질 못한다. 역사가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재간은 이미 갖추어진 힘에 있지 않겠는가.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 5시**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스도쿠365! 손호성 저 | 스도쿠65 | 10,000원

		7		3				1
	1				5			3
2		4			7			
						3	6	8
8				1				2
	5	1	8					
			7				5	4
7			6					2
	2			4			9	

		6			5			1
1		7		4			9	6
	8			1		6		5
			8				1	
3	2							7
			6				3	
	3			5		4		6
4		9		3			5	1
	1			2				4

### 정답

9	2	6	8	7	5	9	2	1
8	2	1	6	9	9	5	7	2
7	5	9	1	2	2	8	9	6
2	6	7	2	9	8	1	9	5
2	9	5	7	1	6	9	2	8
1	8	9	5	2	9	2	6	7
9	9	8	2	6	1	7	5	2
5	7	2	9	8	2	6	1	9
6	1	2	9	5	7	2	8	9

5	7	8	2	2	6	9	1	9
1	2	9	8	5	9	6	2	7
6	9	2	7	1	9	2	5	8
7	8	5	1	2	2	9	6	9
9	1	9	6	8	7	1	2	5
2	6	1	9	9	5	8	7	2
2	9	7	9	6	1	5	8	2
9	5	6	2	7	8	2	9	1
8	1	2	5	9	2	7	9	6

과도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